

<지난주 말씀>

▶지난주에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영혼에 확정된 것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임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흐름입니다. 매주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 중보자, 그리고 이름인 예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인 중보자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려진 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없이 죽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새 언약은 사복음서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 새 언약은 나를 위한 언약이고 우리를 위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옛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살리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율법 조문이고 죽이는 것이라면 새 언약은 살리는 것입니다. 죄에서 속량하고 영원한 기쁨의 약속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영원한 기쁨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오직 한 방향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능력으로, 말씀으로,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오직 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온전케 되는 비밀, 구원을 얻는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봄과 동시에 내가 온전케 되는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초점을 예수께만 두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고 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는 경주자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경주자는 목표가 분명하고 뜻대

가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한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뜻대가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구원 사역이 일어나고 있고 능력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본론>

1. 모든 사람과 더불어

▶저는 병원에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놀라운 비밀을 이번 한주간 누리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12: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은 진리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히12:15상)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새 언약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주장하지 마세요. 내 것을 너무 강하게 어필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입원을 하면서 병원교회를 가보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복음을 말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가보았는데 웬일입니까? 단 한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제가 예배 후에 마침 신우회장인 의사를 만났습니 다. 목사에게 말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대신 신우회장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이 병원은 로컬교회가 아니고 파라교회고, 매주 환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 매주 예배를 드리러 와서 생명을 얻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지 않습니까? 정말로 병원에 왔다가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교회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서 복음을 말했을 때 그 아볼로가 답을 얻고 제사장을 이긴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바울 팀이 사도행전 17장에 귀신들린 여자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알아본 것처럼, 이 교회에도 구원의 길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듣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정말로 맞다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제게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새 언약이 어떤 비밀인지. 오직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새 언약되신, 중보자의 이

름을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14:1)

인생을 살며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히12:15하)

더럽게 되는 것이 우상숭배고 배교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 새 언약 아닌 다른 것을 교회 안에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강조되면, 한 언약이 강조되면 그것이 쓴 뿌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쓴 뿌리를 통해 더럽게 되어선 안됩니다. 쓴 뿌리는 빨리 뽑아내버려야 합니다. 그 독이 전파되어서 옆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비밀은 이 쓴 뿌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은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히12:16)

오늘 정말로 강조하고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음행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이 음행은 사탄이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서는 것입니다. 옛날 일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가 들춰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낭패를 봅니다. 특히 공인일수록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과 에서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에서는 망령된 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장자의 권리를 팔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망령된 자가 없도록 교회 안을 살피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육신과 세상에 기준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배가 고프는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팔죽을 끓이고 있으니 한 그릇 달라고 한 것인데, 야곱이 장자권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 가볍게 생각하고 장자권을 줬 버린 거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보와 이어지는 비밀이 장자의 권리인데, 이것 팔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버리고 육신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망령된 일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히12:17)

이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장자의 권리를 다시 달라고 하니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버리는 일은 망령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2.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히12:18-19상)

말 그대로 이 현장은 모세가 올랐던 시내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 다. 이 율법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율법에 속하는, 그 율법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자유함을 얻은 새 언약으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히12:19하-20)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은 공정하고, 사람과 짐승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다 죽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내산의 율법으로는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내산이 아니고 우리에게 는 시온산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에서 회복된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한 그 율법이 이제 시온산의 우리에게 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히19:21-22상)

모세도 시내산을 겁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시내산을 심히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아는 것은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내산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른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것이 우리에게 는 시온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머물지 말고 살 길 되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에는 중보자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19:22하-24)

거기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곳이었다면, 시온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예수의 피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의 피는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는, 영혼의 닦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받았 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장 가운데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의 흘린 피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이 피를 바른 사람은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혈액형은 예수보혈형입니다. 이 피를 발랐다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흑암 앞에서 나는 예수의 피가 발라진 사람이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 없는 아벨의 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벨은 죄 없이 형인 가인에게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바를 피는 예수의 피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가 나옵니다. 창세기 3, 6, 11장을 통해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귀, 사탄, 지옥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의 피로 인간의 모든 문제, 다른 말로 시내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산의 비밀, 복음의 비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비밀인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3.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예수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확신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가 떠나서 뭔가가 딱 걸린다면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이 말은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흐름을 놓친다면 내 생각에 빠져 버립니다. 흐름을 잘 붙잡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보나(히12:25)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시내산에서는 땅이 진동했지만 새롭게 부여받은 시온산의 복음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구약의 언약을 배반해도 살 길이 있지만, 새 언약을 배반하면 살 길이 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 셧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히12:26-27)

하나님의 위대성, 영원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히12:28)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다른 것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히12:29)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답은 오직 새 언약이신 중보자 예수입니다.

《결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정말로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뭐로 죽이니까? 시내산으로 죽입니다. 우리는 시온산으로 살려야 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게 되는 비밀입니다.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는 자가 되어선 안됩니다.

▶헌 언약은 율법입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중보자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 나라를 받을 때 하늘도 진동하고 땅도 진동합니다. 이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주역이고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당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